

불국사의 탑은 사랑을 바친 공든 탑이다



고요해진 불국사의 뜰에 아사녀가 애타게 그리던 석가탑이 서있다.

소설 <무영탑>의 무대 17 경주 불국사(佛國寺)

경주 불국사에는 애달픈 전설이 있다. 석공 아사달과 그의 아내 아사녀의 이야기다. 전설은 소설이 된다. 현진건(1900~1943)의 소설 <무영탑>에서 부여의 석공 아사달은 혼인한 지 1년도 안된 아내 아사녀를 부여에 남겨두고 서라벌 불국사로 떠난다. 다보탑과 석가탑을 세운 후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지만 그들은 영영 만나지 못한다. 1938년부터 1939년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됐던 <무영탑>은 작가인 현진건이 동아일보 재직시(사회부장) 이른바 '일장기 말살 사건'으로 1년간의 옥살이 후에 쓴 작품이다.

그 옛날 연못 속 위에 떠있던 청운교 백운교가 지나간 소나기에 젖어있고, 자하문 지붕 너머에는 다보탑의 윗토막이 구름에 흘러가고 있다.

다보탑을 다 짓고 난 아사달은 석가탑을 짓기 시작했다. 부여를 떠나온 지 3년 째 되던 초파일 밤, 아사달은 고향에 쏟아지는 달빛 아래서 다보탑을 돈다. 부여를 떠나기 전날 밤, 그 자그마한 가슴으로 팔켜잡겨 돌아누워 울던 아내의 모습이 떠오른다. 떠나던 날 멀리서 불렀던 이름, 아사녀. 그 이름이 사무쳐 탑을 들고 또 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는 528년(신라 법흥왕 15)에 세워졌다는 설과 이보다 앞선 눌지왕 때 세워졌다는 설이 있다. 임진왜란 때 가람이 많이 소실됐고, 40여 차례의 중수와 일제강점기의

대규모 개수, 1969년 구성된 불국사 복원위원회의 불사를 거쳐 오늘날의 이르고 있다.

"여기가 분명히 불국사입지요?" 불국사의 저녁나절. 웬 여자 거지 하나가 절문 앞에 나타난다. 아사녀다. 남편을 만나기 위해 서라벌에 온 것이다.

"무슨 소란이 있어 불국사를 찾으시오?" "이 절에 부여에서 온 석수가 있습니까? 아사달이라고. 그 어른이 제 남편이요."

"안 되요. 그 석수는 지금 볼 수 없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왔단. 절간에 아무 여편네나 함부로 들이는 줄 아나 봐."

석가탑이 다 지어지기 전에는 아사달을 만날 수 없다는 문지기의 말에 아사녀는 절망한다.

"제가 어디서 그 탑이 다 되고 안 된 것을 보고 온단 말씀예요. 온, 그 탑 그림자라도 보아야 할 것 아녜요."

"여보 아주먼데, 그러면 좋은 수가 있소. 여기서 환하게 내다보이는 저 길로 한 10리만 가면 거기 그림자못(영지·影池)이란 어마어마하게 큰 못이 있소. 그 못에는 이 세상 어느 물건치고 아니 비치는 게 없단 말이요. 지금 아사달이 짓는 석가탑 그림자도 뚜렷이 비치길 거란 말이거든. 자, 그 연못에 가서 기다려보요."

끝내 석가탑의 그림자는 영지에 비치지 않는다. 하여 석가탑을 무영탑이라 한다.

불국사 뜰에는 아사녀가 그림자도 보지 못했던 석가탑이 노을에 젖고 있었다. 석가탑이 완성되던 날 아사녀는 영지에 몸을 던진다.

"나는 가요, 저 물 속으로. 내 시신 위어나마 당신이 이룩한 석가탑의 그림자를 비춰주세요."

경주시 왜동읍, 영지 위로 바람이 불고, 세상의 모든 그림자들이

물결에 흘러가고 있었다. 석가탑이 완성되고 난 다음 날 아침, 아사달은 죽은 아사녀를 찾아 영지를 헤매다 끝내 아사녀를 찾지 못하고 돌덩이에 아사녀를 새긴다.

'그 먼 길에 나를 찾아오느라고 그 파리해진 얼굴을, 그 저는 다리를 보여주지 않고 죽다니 말이 되느냐. 그렇게 의지한 그였거늘, 그렇게 차근차근하였거늘, 그렇게 나이보다 숙성한 그였거늘, 안전한 그였거늘, 사랑 많은 그였거늘 나를 버리고 죽다니 말이 되

나. 아사달은 허리춤에 꽂았던 마치고 정을 빼어 들었다. 그는 방장 나타난 제 아내의 환영을 그대로 그 뜰에 새기기 시작하였다.' 영지 옆에는 석불좌상이 그것이라고 전해온다.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에 간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갈 일이다. 사랑을 바친 공든 탑이 있기 때문이다. [인용문-무영탑]

글·사진 = 박재완 기자 wanholo@hanmail.net



경주시 왜동읍에 있는 영지석불좌상.



아사녀가 석가탑의 그림자를 애타게 기다렸던 영지.

新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수공예 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토피 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밀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 ※ 고·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 탕화 등에 침범을 막아주는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봉밀납양초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 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물에서 잠시 약 1분 정도 내려놓으세요. 물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능인로즈마리·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으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로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